안숙공종회 부조묘 제향후 총회 열어

고령의 權炳洪회장 퇴임하고 權寧傑씨 선출

▲ 안숙공종회의 총회가 열리고 있다

▲ 안숙공 부조묘의 중건상량문

▲ 안숙공 부조묘의 중건기문

추밀공파 시조후 17세 안숙공安肅公(양촌 문충공의 4남 휘 준蹲)의 부조묘不祧廟(불천지위不遷之位 사당) 기신제忌辰祭가 공의 휘일諱日인 음력 4월 그믐, 양력 6월 11일 오전 11시에 충북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 능안 묘역하의 사당에서 봉행되었다. '양촌권근삼대묘소'의 문화재 구역 안에 소재하여 작년에 관비로 중건한 불천지위 사우祠宇에서 첫 주년에 맞는 향사였다. 사전에 종회에서 임원과 종회원 등에게 보낸 공문에서 임원개선 등의 주요안건을 처리할 것이 예고되어 있고 다수의 계파별 임원 등의 참석이 호소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호응이 저조하여 참석 인원은 가까스로 20여명을 채우기에 바빴다.

향사에 앞서 제물이 준비되는 동안을 이용해 10시 30분경부터 권병홍權炳洪 회장 주재로, 재사의 정당에서 통보한 대로 총회가 열려 경과보고와 결산보고 등이 있고 나서 임원개선의 의안이 상정되었다. 권병홍 회장은 이미 86세의 고령인데다 동 종회장직을 3기 이상 연임하고 있고, 이제 백사가 역부족이라 더 이상 지탱이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사의를 밝히고 신임회장을 선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이 안건에 대해서는 대안이 쉽게 나오지를 않아 향사 후의 음복석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제물 진설에 앞서 처마 안 앞벽에 이 부조묘의 중건상량문重建上樑文과 중건기문重建記文이 게판揭板되었다. 옛 사당 거물에는 사실 상량문이나 기문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문화재 차원에서 새롭게 중신한 것을 기려 각별히 갖춘 것인 바, 준공 후 한 해 가까이가 걸린 것이었다. 그 글은 상량문과 기문 다 18대손 권오훈權五焄이 짓고 글은 방손 권상목權相穆이 썼으며 조각은 15대손 권중업權重業이 하였다. 그리고 양 현각의 판각 비용은 산하 수은공睡隱公계의 경기 파주시 삽교鍤橋문중에서 헌성하였다.

향례는 산하의 석주공石洲公계에서 새로이 그 종회장이 되어 참석한 18대손 권오진 權五璡씨가 초헌관이 되어 봉행되었으며 아헌관은 방손으로서 처음 이곳을 봉심한 정헌공正獻公계 화산부원군종회장 권진택權晋澤씨가, 축관은 역시 이곳에 처음인 동 화산부원군종회의 권정택權貞澤 부회장이 행공하였다.

행사후 음복석에서는 다소간의 난항 끝에, 권병홍 회장의 사의가 확고하여 만류가 불가인지라 신임 회장이 선출되었다. 처음에 당일 초헌관으로 행공한 석주공종회장 권오진씨가 추천되었으나 본인의 고사로 철회되고 다음 권오훈 전임회장이 추천되어 이미 역임한 자의 재임 요구가 무리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현임 부회장인 창수공倉守公계 송파공 松坡公종회를 대표하는 권영걸權寧傑씨가 추천되어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개성 풍덕이 고향인 권영걸씨는 현재 인천에 거주하며 안산에서 기계설비업체를 경영하고 있으며 문중의 각급 종사에 두루 참여하며 종사하고 있다. 권영걸 신임회장은 고사 끝에 결국 취임을 수락하면서, 안숙공종중의 제반사에 관해 소양이 너무 부족하나 여러 종원이 뒷받쳐만 준다면 열심히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음복을 겸한 속개의 총회를 마치고는 신임 권영걸 회장 이하가 묘소로 올라가 안숙공과 그 부공 문충공 묘전에 성배하였다.

▲ 안숙공 부조묘 향례에서 초헌관이 작헌하고 있다

▲ 안숙공 묘소에 성배한 권영걸 신임 회장(가운데, 그 오른쪽은 권진택 화산부원군종회장과 권정택 동종회 부회장이다)

<사진 權五焄 · 글 權炳逸>

격려에 감사합니다

5월 14일 안동권씨충주종친회에서 10만원을 협찬하여 주시었습니다.

추연 權龍鉉공 석채례

창건중인 서원 뒤의 泰東書舍에서 거행

경남 합천군 초계면 유하리의 태동서사泰東書舍에서 5월 8일, 음력 3월 25일 정일定日에 추연秋淵 권용현權龍鉉공의 석채례釋菜禮가 봉행되었다. 이곳 태동서사는 30여년 전에 서세한 복야공파 감정공·상암공霜嵒公계 시조후 35세 추연 권용현공이 평생 강학하며 많은 제자를 기른 곳인데 공의 서세후 보인계輔仁契로 거기에 모이는 문인門人들이 원향院享에 준하는 석채례를 행하고 있다. 서사 앞에 정부 보조금 등으로 이삼년 전부터 서원을 창건하여 현재 사당과 강당 건물을 지어 놓고 있는데 동서재東西齋와 원장垣墻 등의 공사가 미비되어 봉안례를 거행치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에 따라 금년에도 기존의 서사에서 사향祠享이 아닌 석채례를 행하게 되었다.

석채례인만큼 전작奠爵은 단헌單獻(술을 한 잔만 올림)으로 이루어졌고, 참례자들은 전일前日부터 입재入齋하여 오후 6시에 집사자執事者가 분정分定되고 당일 아침 8시에 행례가 봉행되었다.

그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헌자獻者 : 제명수諸明秀
집례 : 이완규李完圭
축祝 : 이효근李孝根
장의掌儀 : 이흥규李興圭
찬인贊引 : 권갑상權甲相
찬창贊唱 : 이성규李成圭
봉향奉香 : 권인상權麟相
봉로奉爐 : 백만진白萬珍
사준司尊 : 이봉영李鳳永
봉작奉爵 : 최국경崔國慶
전작奠爵 : 이갑규李甲圭
진설陳設 : 정창석鄭昌碩
학생學生 : 이길영李吉永、정수근鄭洙槿、이장렬李璋烈

행례 후에는 보인계의 연례회의가 열렸다. 보인계는 추연의 후학문인後學門人 4백여 명이 모여 이룬 계회이며 태동서사를 서원으로 창건하여 제향을 받들고 이를 수호하기 위해 현재 사단법인화하여 운영중이다.

<權甲相>

▲ 태동서사의 석채례가 봉행되고 있다